

피타고라스가 권하는 기억하고 매혹시키는 기술

-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릴 수 없는 일들이 있다. 삶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도 자신의 성격, 존엄성, 자존감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.
- 네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. ‘네 영혼의 주인이 되어라.’ ‘아무도 너의 허락 없이 너를 해칠 수 없다.’ ‘역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.’
- 금언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의 자동습관이 필요하다.
- 무의식적인 사고습관을 만들어내는 것과, 그 습관에 의문을 품고 융통성과 유용성을 운용하는 능력 사이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.
- 어리석음 정도의 낙관주의는 스스로 신경증에 걸리자고 다짐하는 부정적인 말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다.
- 결국 자신이 이길거라는 믿음과, 지금 자신이 처한 잔혹한 현실에 맞서는 절제력을 혼동하면 안됩니다.